네팔, 모든 부처님 예경…'삼약 마하단' 성료

'올바른 보시의 큰 축제' 뜻해
파탄지구 축제로 1653년 시작
140여 불상에 공양 올리며 자선
5년에 한번 개최…연등불 예경

박영빈 객원기자


축제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연등불 불상들. 사진출처=마이 레퍼블리카

네팔 불교에서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삼약 마하단' 축제가 지난 3월 14일 성만했다. 카트만두 각 사찰에 모셔진 불상을 한 곳에 모아 예경하는 이 축제에 대해 '사우스 아시아 뉴스 네트워크' '네팔리 타임즈' '마이 레퍼블리카' 등 현지 언론과 외신들이 특별보도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의 파탄지구 더르바르 광장 근처에 위치한 낙바하 공원에서 열린 삼약 마하단 축제는 3월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진행됐다. 네팔 파탄 사원 연합회의 회원인 히라 라트나는 "삼약 마하단이란 '올바른 보시의 큰 축제'라는 뜻이다. 이름에도 있듯이 보시행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사람들은 이날 특별히 더 많은 보시와 공양을 올리며 불보살을 예경한다"고 설명했다.

삼약 마하단 축제는 카트만두 각 지구에서 열리며 개최시기 또한 다르다. 박타푸르지구에선 매년 열리고, 카트만두 중심지에서는 12년에 한 번씩, 랄릿푸르에서는 50년에 한 번씩 열린다. 기록상에 남은 가장 오래된 삼약 마하단은 1015년에 개최된 랄릿푸르지구의 축제이다. 이번에 열린 삼약 마하단 축제는 파탄지구의 축제로 1653년에 처음 시작됐다. 파탄지구의 삼약 마하단 축제는 1805년까지는 매년 개최되었으나, 축제를 위한 관리기금과 인원 통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5년에 한 번 개최되는 것이 전통이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축제의 기원에 대해선 7세기경 네팔의 거상이었던 순데르 사르트 바후의 전설이 전하고 있다. 계속되는 사업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랄릿푸르의 황금사원에 모셔진 연등불의 불상을 본존으로 카트만두의 각 사찰에 있던 중요한 불상들 한자리에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푼 것이 삼약 마하단 축제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이번 파탄 삼약 마하단 축제에는 파탄지구의 여러 지구에서 140여 구의 불상들이 낙바하 공원으로 이운됐다. 불상들은 축제의 기원과 관련된 연등불 불상이 126구였고, 나머지는 협시보살상, 혹은 평소에 공개되지 않는 작은 불상들이었다. 연등불 불상을 공원의 둘레에 따라 봉안하고, 공원 중앙엔 보살상과 불화 등을 전시한 예불 장소를 마련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참배할 수 있게 자리가 마련됐다.

양일에 걸쳐 진행된 축제에서 참가자들은 각 불상에 꽃과 등불, 과일, 불전 등의 공양물을 올리고 각 사원에서 불상을 모시고 나온 수행자들에게도 공양물을 보시했다. 한 참가자는 "평소와는 달리 모든 부처님들이 한 곳에 계시고, 또 보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크게 열리는 것은 귀한 기회다. 축제가 열릴 때마다 항상 참가한다"고 말했다.

中, 북위시대 사찰 유적 발견

대형 불탑 중심…관영사찰 가능성도


다퉁시 유적에서 발굴된 불두와 벽화편. 사진출처=신화통신

중국 '신화통신'이 3월 14일 "중국 산시성(山西省) 고고연구원이 최근 같은 성 다퉁(大同)시 핑청(平城)구에서 불탑을 중심으로 하는 북위시대 사찰 유적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고고연구원 측은 출토된 유물과 사찰 규모에 따라 이 유적이 관영사원이나 당시 황실과 관계된 사찰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해 눈길을 끈다.

다퉁시 고고연구소는 지난해 6월 도시 개발 중 발견된 고대 유적에 대해 중국국가문물국의 인가를 받아 2개월간 긴급발굴조사를 실시했다. 발굴 조사 결과 유적이 북위시대(386~589)에 조영된 사찰 유적임이 밝혀졌으며,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유물들이 다량 출토됐다. 리슈윈 다퉁시 고고연구소 부소장은 "유적 중심부에는 1변이 16m에 달하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탑 기단이 발굴됐다"면서 "특히 당시로선 매우 고급 건축에 사용되는 기법이 활용됐다"며 일반적인 사찰 유적과는 다름을 밝혔다.

발굴구역 주변의 조사에서는 탑의 기단을 중심으로 북쪽과 서쪽의 구역에서 각각 건물의 유구가 발견되고 있어 이 유적이 불탑을 중심으로 하는 사찰이었음이 드러났다. 특히 탑기단의 중앙 부분에서 정사각형의 복장공이 발견됐으며 구멍 바깥의 주변에는 진주가, 구멍 바닥에서는 진주와 산호, 구리반지 등이 출토된 것도 동시대의 다른 유적들과 다른 특이점으로 꼽히고 있다.

다퉁시 고고연구소 측은 "사원 유적 근처의 다른 유적에서 발견된 철갑옷의 파편에서 해당 사찰이 이곳 핑청을 수도로 삼았던 북위 평성시대(398~494년)에 세워진 사찰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리슈윈 부소장은 "북위 평성 시대의 불탑 건축 형식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실물 자료가 드러났다"면서 "사찰이 당시 궁성 유적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있고, 출토한 불상들의 섬세함과 채색된 격에서 원래는 관영사원이나 황실과 인연이 있는 사찰이었던 것이 추측된다"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개조가 전한 이타행 가르침 이어가겠습니다"

신뇨엔(眞如苑), 3월 28일 신뇨 교슈사마 탄신118주년 대재

한국 서울·부산정사 동시 진행
교도 대표 "고난에 자애 관철"


서울 정사에 모인 신뇨엔 교도들이 교슈사마 영전에 꽃을 올리고 있다.

신뇨엔(원주 게이슈사마)은 3월 28일 일본 총본부 및 응현원을 비롯한 신뇨엔 전 세계 의처에서 신뇨엔 개조 교수사마 탄신 118주년을 기념한 탄신재를 봉행했다.

이날 탄신재에는 진언종 총본산 제호사 좌주이자 제호파 관장, 대본산 삼보원 문적인 카베세 유우가 대승정을 비롯하여 진언종 제호파 총무부장 나카다 준에이 등 제호사 관련 임원들이 내빈으로 참석했으며, 교도 1만여 명이 함께 동참했다. 서울정사와 부산정사에서 생중계로 일본과 실시간으로 탄신재를 함께 거행했으며, 서울정사 100여 명, 부산정사 130여 명이 동참했다.

탄신재는 성지 오야소노(親苑) 진징사 오쿠노인(奧阮)에서 봉수되어진 등불을 부처님 존전과 신뇨엔 상주 본존 영존에 이운 점화하는 등명향화 의식을 시작으로 신뇨엔 원주 입장과 〈대반열반경〉 독경, 축원문 봉독, 신뇨엔 개조 이또신죠, 소오야(總親) 사마의 생전 가르침 영상, 카베세 유우가 진언종 대승정의 축사, 신뇨엔 원주의 서교(법문) 등이 이어졌다.

신뇨엔 원주는 "신뇨 교슈사마(개조)는 '어떠한 괴로움과 고난에도 자애를 관철하며 목숨과 맞바꾼 구제에 걸었다'고 술회하셨다"며 "탄생 118년의 의미는 신뇨엔 상주의 빛을 널리 비추는 이타행에 있다. 이타를 통한 보은의 길, 법부모의 자애를 전하는 길에 함께 나서자"고 당부했다.

교도를 대표하여 이시카와현 사회복지협에 근무중인 에다 씨는 "신뇨엔 가르침 속에 자라 복지관련 대학에 진학 현재 봉사와 지역지원에 매진하고 있다"며 "지진 등 재난에도 나무신뇨(南無眞如)를 다짐하며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구제를 위한 마음을 항상 내고 있다. 수해와 각종 재난에서 신뇨의 구제가 펼쳐지고 있다. 심신이 피폐해져 불평불만이 생길 때도 이타에 대한 마음으로 이를 바꿔 꾸준히 정진해가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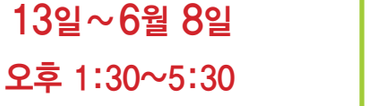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교사로 봉직 후 미국교구를 일구고 있는 페드라자 마리 씨는 "성지 오야소노 근처 미국 공군기지서 태어나 어려서 신뇨 가르침을 접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로 옮겨와서도 이 가르침을 되새겨 살고 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빈곤 문제나 학생 안전 문제에서 그 가르침이 항상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탄신재는 교도연합부와 청년회, 봉사단체대표 들이 자비실천 맹세를 담은 헌등과 헌화로 끝을 맺었다.

한편, 신뇨엔은 개식 전 영존 료도 지사마를 선두로 신뇨엔 교도 아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손을 잡고 다치키와 시내를 행진했다. 신뇨엔은 3월 31일 제2정사 상량식 봉행과 함께 11월 17일 일본 진언종 제호사 개창 1150년을 축하하기 위한 신뇨엔 제섭회가 제호사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그리스 최초 '선 센터' 개원한다

아테네 케라메이코스 선 센터 등 2곳


카이산지 선 센터 항공사진. 사진출처=선 센터 아테네

지난 3월 16일 그리스 일간지 '카티메리니'는 그리스 최초의 선 센터 개원 예정 소식을 전했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의 케라메이코스 선 센터와 세리포스 섬의 카이산지 선 센터 2곳이 개원 예정이다.

두 개의 선 센터는 막바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의 전통 건축과 현대 건축을 재해석해 설계했다. 선 철학을 공간적·경험적으로 구현하여 수행자 스스로 진정한 본성에 대한 인식을 깨닫도록 돕는다.

케라메이코스 선 센터는 38명의 수행자를 위한 명상 공간과 무술과 요가 수행 공간이 50여 평 규모로 조성되며 2~3층에는 입방자와 강사를 위한 방사와 공양간이 들어선다.

카이산지(海山寺) 선 센터는 천혜의 자연을 품은 그리스 휴양지 세리포스 섬에 건립 중이다. 명상 공간과 요가 수행 공간, 휴식 공간을 중심으로 설계했다. 또한 출가자와 장기 수행자를 위한 10개의 방과 공용 욕실, 넓은 주방이 있으며 센터 외부의 방에는 30여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선 센터에서는 좌선, 요가, 거합도, 합기도, 태권도 수업을 제공할 계획이다. 매달 첫째 주 화요일에는 선원장의 선 입문 수업이 예정되어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제40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 교육생 모집

마음의 힘 키우기
인연과 화합하기
달라지는 '나'
주인된 삶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마음공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마음공부의 재료로
삼아 믿고 맡기고 지켜보며
나와 내 주변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생활 속
관법 수행입니다.

대 상 :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누구나
일 정 : 2024년 4월 13일~6월 8일
매주 토요일 오후 1:30~5:30
장 소 : 한마음선원 내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경수대로 1282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모집인원 : 총 50명 선착순
신청방법 : 한마음과학원 홈페이지 - hansi.org
수 강 료 : 20만원
문 의 : 031-470-3200/3198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